

한국 공포영화의 오컬트 장르 초기 수용 양상 연구

한상윤*

〈차례〉

1. 들어가며
2. <엑소시스트>(1973)와 오컬트 장르
3. 오컬트 장르 수용의 사회문화적 배경
4. <너 또한 별이 되어>(1975)와 한국 오컬트 영화
5. 나가며

〈국문초록〉

기존의 한국 공포영화가 비슷한 여귀 서사를 반복하여 비판을 받던 중, 전 세계적으로 흥행한 할리우드의 공포영화 <엑소시스트>(1973)의 영향으로 한국에서도 오컬트 형식의 작품이 제작되기 시작한다. 하지만 오컬트 장르 등장 of 구체적인 맥락은 서구의 경우와 같다고 보기 어렵다. 서구에서는 오컬트 영화가 반근대·반문명적 의미를 지닌 뉴 에이지 문화의 한 부분으로 소비되었던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기존 한국 공포영화의 전근대성을 탈피하게 해줄 ‘근대적 장르’로 주목받았기 때문이다. 1970년대의 한국 사회가 그 어느 때보다 과학과 기술, 그리고 과학적 사고의 중요성을 강조하던 시기였다는 사실을 염두에 둔다면, 근대화에 대한 대중적 욕망이 한국 오컬트 영화의 등장 of 중요한 한 동력으로 작용하였다고 볼 수 있다.

1970년대 한국 오컬트 영화의 대표적인 작품으로 <너 또한 별이 되어>(1975)가 있다. 이 작품에는 병원에서의 진단 장면이나 형사의 수사 장면 등 기존 한국의 공포영화에서는 볼 수 없었던 장면들이 등장한다. 이는 <엑소시스트>의 인상적인 장면을 모방하여 근대적 질서와 표상을 재현한 장면들이다. 심령학자의 등장 역시 초현실적 현상을 ‘과학’의 틀에서 다루어 보고자 한 새로운 시도로 볼 수 있다. 이러한 특징들은 ‘시대성에 맞는’ 작품을 만들어야 한다는 영화계의 요구에 부응하고 있는 것이며, 이때 심령과학은 무당이나 미신과 다른 또 하나의 과학으로서 영향력을 갖는다. 하지만 기존의 서사 및 문화 관습의 영향으로 서구의 그것과 다른 독특한 양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기독교의 악령이 여귀로 대체되고, 귀신의 퇴치가 아닌 해원(解冤)으로 결말을 맺는 것 등이 그것이다. 이 지점에서 한국 공포영화가 서사적 원천으로 삼아왔던 공안 서사의 특징을 찾아볼 수 있으며, 이때 심령학자는 여귀의 비정상성을 현세의 질서 안에서 다시 정상화시키는 남성 권력의 역할을 한다.

* 고려대학교

이상의 서술을 통하여 우리나라에서 오컬트 영화의 수용은 서구 영화의 단순한 모방을 넘어 나름대로 당시 우리나라의 사회문화적 상황과 맞물리며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주제어 : 1970년대, <너 또한 벌이 되어>, 심령과학, <엑소시스트>, 오컬트 영화, 한국 공포영화

1. 들어가며

1960년대 중후반경 하나의 유의미한 장르로 자리 잡은 한국의 공포영화는 많은 관객을 동원하며 비교적 전성기를 누렸다. 그러나 1970년대에 접어들자 영화계의 전반적인 침체 분위기와 함께 공포영화는 'B급 영화'화되어 재개봉관 및 지방개봉관을 중심으로 소비되기 시작하였다. 이 시기에 공포영화는 당시 인기를 얻고 있었던 무협물과 결합하거나 성을 상품화 하고, 입도선매 방식으로 지방 흥행사들과 관계를 맺는 등 나름의 활로를 모색해 나가고 있었다.¹⁾ 하지만 전통적인 여귀 서사를 비슷하게 반복하는 한국 공포영화에 관객들은 진부함을 느끼기 시작하였다.

그러던 중, 1970년대 중후반경 한국 공포영화계에 눈에 띄는 흐름이 하나 등장한다. 그것은 바로 심령현상을 소재로 한 작품들의 등장이다. 기존의 원귀형 공포영화 스타일을 답습하던 중 할리우드 공포영화 <엑소시스트>(1973)가 신선한 내용과 소재로 세계적인 흥행을 하게 되었고, 여기에 영향을 받아 우리나라에서도 <엑소시스트>와 비슷한 형식의 영화를 만들기 시작한 것이다. 이러한 스타일의 공포영화를 '오컬트 영화' 혹은 '심령공포영화'라 할 수 있다. '오컬트 영화'란 초자연적 현상이나 악령, 악마 이야기를 바탕으로 한 일종의 심령 영화로 비현실적인 공포 영화와는 달리 악마의 실체와 존재를 현실 세계에서 끄집어내고 마치 실화처럼

1) 1970년대 이후 공포영화의 산업적 환경에 대해서는 이순진, 「한국 괴기 영화의 변화과정에 대한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1, 63-87면 참조.

사건을 다루는 것이 특징인데,²⁾ 우리나라는 서구의 오컬트 영화를 한국의 기존 공포영화와 차별화되는 새로운 장르로 보고 그것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구체적인 양상은 서구의 그것과 여러 면에서 차이를 보여 매우 흥미롭다.

기존의 연구에서는 몇 작품의 단편적인 언급을 제외하고 197-80년대의 한국 공포영화에 대한 서술이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한국 공포영화의 형성 및 정착기였던 1960년대의 공포영화, 그리고 부흥기를 맞은 1990년대의 공포영화와는 달리, B급 영화화 된 197-80년대 공포영화는 상대적으로 중요하게 여겨지지 못했던 것이다. 하지만 침체와 저질화라는 외피를 떠나 그 내부를 살펴보면, 이 시기에 공포영화는 오히려 TV와 경쟁할 수 있는 차별화된 영화 장르로 인식되었으며,³⁾ 내용상으로도 흥미로운 상상력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당대 대중의 감각과 욕망을 다채롭게 표출하고 있었던 상상력의 장소로서 197-80년대 공포영화를 조명해 볼 필요가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1970년대 중후반 새로운 흐름으로 떠오른 한국 오컬트 영화의 초기 작품을 연구 대상으로 다루어 보고자 한다.

전술하였듯, 한국의 오컬트 영화는 기본적으로 <엑소시스트>와 같은 서구의 오컬트 영화를 적극적으로 모방하면서 시작되었다. 하지만 여기에는 서구 오컬트 영화의 유행을 단순히 좇은 것이라고만 볼 수 없는 지점들이 존재한다. 첫째, 서구에서는 뉴 에이지 문화의 확산과 함께 반근대·반문명적 의미로 소비되었던 오컬트 영화가 비슷한 시기 우리나라에서는 다른 의미로 받아들여졌다는 점이다. 뒤에서 더 자세히 살펴볼 것이지만, 서구의 경우와 달리 한국의 오컬트 영화는 ‘근대적(과학적) 표상이나 질서를 적극적으로 재현한다는 점에서 장르적 의미를 부여받았다.

2) 장병원·김광철, 『영화사전』, MEDIA2.0, 2004, 285면.

3) “영화적인 장점이란 TV가 따라올 수 없는 특수성으로 ▲에로티시즘 ▲괴기, 공포, 오컬트(심령) ▲SF(공상과학), 스페이스(우주), UFO(미확인 비행물체) ▲스펙터클한 대작 ▲특수음향효과나 입체영화 등을 들 수 있다.” (『우리영화 점점 대담해진다』, 『경향신문』, 1982.2.23.)

그리고 둘째, 한국의 오컬트 영화는 우리나라의 오랜 서사적·문화적 관습의 영향으로 서구의 그것과 다른 고유의 서사를 전개해 나간다는 점이다. 가령, <엑소시스트>, <오멘> 등의 작품을 거치며 장르로서 성립된 서구의 오컬트 영화는 미국의 기독교 문화적 배경이 작용하여 신과 악마의 대립 구도가 깔려있으며, 기독교적 이미지가 강하게 드러난다. 하지만 기독교 문화의 뿌리가 깊지 않은 한국의 오컬트 영화는 신부 대신 심령과 학자가 등장하며, 악령이 여귀로 대체되는 등의 변화를 겪는다. 이와 같은 현상은 오컬트 장르의 수용이 나름대로 당시 우리나라의 사회문화적 상황과 맞물리며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암시한다.

이상의 사실을 염두에 두고 본고는 해당 장르의 등장을 추동했던 당시의 사회문화적 상황 및 한국 오컬트 영화의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한국의 초기 오컬트 영화가 단순히 서구 문화의 수용이라는 차원을 넘어 1970년대 우리나라의 대중적 욕망과 어떻게 관련을 맺으며 존재하고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규명해 볼 수 있을 것이다.

2. <엑소시스트>(1973)와 오컬트 장르

가정비극적 서사를 통해 여성의 수난과 한을 다룬 공포영화 <살인마>(1965)와 <월하의 공동묘지>(1967)는 당시 주요한 관객층이었던 ‘고무신 관객’들의 마음을 사로잡으며 흥행에 성공 하였다. 이는 여귀를 중심으로 한 신파적·멜로드라마적 서사가 한국 공포영화의 주류 자리를 차지하게 되는 데에 큰 역할을 하였다.⁴⁾ 또한 유현목의 <한>(1967)이 상업적인 측면과 비평적인 측면 모두에서 좋은 성과를 낸 이후로 <속 한>을

4) 한국 고전 공포영화의 형성과 정착 과정에 대해서는 백문임, 『월하의 여곡성』, 책세상, 2008, 95-141면 참조.

비롯하여 <엄마의 한>, <며느리의 한>, <옥녀의 한> 등 ‘한을 내세운 일련의 작품들이 제작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비슷한 주제와 내용을 반복하는 공포영화에 점차 관객들은 지루함을 느끼기 시작한다. 한 예로 남편을 기다리다 고난 속에서 죽음을 맞은 아내와 딸의 이야기를 기존 공포영화의 장르관습에 기대어 다룬 하길종의 1973년 작 <수절>은 당시 화제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스토리의 전개가 진부하고 지루한 감이 느껴진다.”⁵⁾라는 혹평을 받았다. 그나마 <수절>은 <화분>으로 이름을 알린 유학파 감독 하길종의 차기작이라는 기대에 힘입어 “금년도 10대 작품”⁶⁾에 선정되는 성과를 내었으나, 그 외의 공포영화들은 매우 부진한 흥행으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었다. 여기에 더하여 TV 보급의 확대 및 도시 구조의 재편성으로 영화관을 찾는 주요 관객층도 젊은 층으로 바뀌어 공포영화는 새로운 변화를 꾀해야 할 시점에 다다라 있었다.

이때 한국 공포영화계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었던 것이 바로 할리우드의 공포영화 <엑소시스트>(1973)이다. <엑소시스트>는 한 소녀에게 쉰 악령과 그를 물리치려는 신부의 대결을 다루고 있는 영화로, 놀랄 만한 흥행기록을 세우며 전 세계에 오컬트 붐을 일으켰으며 1975년 한국에서도 개봉하여 역시 큰 인기를 끌었다. <엑소시스트>의 성공 이후 한국 영화계는 오컬트 영화 붐에 주목하는 한편, 기존 한국 공포영화에 대한 비판과 자성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내기 시작한다.

(가) 야화의 전설 속에는 내려오는 관습대로 한 맺힌 원한에 대한 인과응보의 주제부터가 너무나 변화 없이 지루함을 느끼게 하고 있다. (...중략...) 시대의 변천에도 아랑곳없이 너무나 국한된 테마가 팬들의 관심을

5) 「이달의 영화평 - 다작 경연이 몰고 온 관객의 외면」, 『영화잡지』, 1974.6, 162면.

6) 「1973년 영화계의 총결산」, 『영화잡지』, 1974.2, 97면.

멀리하게 만들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중략…) 외국의 경우에는 괴기물 영화가 반듯이 귀신을 떠나서 우리 생활과 직결되도록 시도해 나가고 있으며 귀신에만 국한시켜오던 괴기물 영화를 심령과학적인 방법과 기획을 모색하고 있는 것이다. (…중략…) 또한 앞으로 제작되는 괴기물 영화들은 제4차원적인 세계인 심령과학적인 세계로 탈바꿈하고 있으며, 우리의 생활 속에 적합하고 시대성에 맞추어 영화를 만들고 있는 것이다.⁷⁾

위의 인용문 (가)는 기존의 한국 공포영화가 시대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인과응보의 주제만을 반복하는 반면, <엑소시스트>와 같은 서구의 공포물은 “우리 생활과 직결되도록 시도”를 한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즉, 한국 공포영화도 이제 전통적인 귀신 이야기를 벗어나 좀 더 시대에 맞는 내용을 다루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인용문의 필자가 말하는 서구 오컬트 영화의 “시대성에 맞”는 특징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좀 더 자세한 논의를 위해 아래의 인용문을 참고해 보도록 하자.

(나) 또 하나 이 영화를 보면서 공포를 느끼게 하는 것은 의사들은 비과학적인 엑소시즘(악마쫓기)을 권유하고 있었으며, 신부는 정신병리학원을 권장하는 서로가 상반된 의견을 내놓는 것이다. 게다가 이 영화는 리간에게 진짜 악마를 쫓은 것이냐? 아니면 가짜악마를 쫓워놓은 것이냐?의 구별을 규명하지 못하는 것에서 더욱 공포의 분위기로 끌어넣는 것이다.⁸⁾

위의 인용문 (나)는 <엑소시스트>에 대한 영화평 중 일부로, 이를 통해 작품의 어떤 부분이 관객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는지 유추해볼 수 있다. <엑소시스트>에서 의사들은 여러 의학적 이론으로 리간의 몸을 검

7) 「괴기영화」, 『영화잡지』, 1975.9, 95-96면.

8) 「이달의 영화평」, 『영화잡지』, 1975.8, 212-213면.

사하고 치료를 시도해 보지만 아이의 이상 증상을 고치는 데 실패한다. 그리하여 의사는 최후의 수단으로 엑소시즘을 권장한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과학적인 치료의 한 방법으로서 이다. 아이가 자신 안에 다른 존재가 들어있다고 믿기 때문에 엑소시즘 의식을 행하면 심리적인 치료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엑소시즘을 의뢰 받은 카라스 신부 역시 처음에는 악마의 존재를 의심하여 병원 치료를 권장한다. 그러나 갈수록 심리적, 혹은 정신적 차원의 문제라고만 보기 어려운 현상들이 나타나고, 그녀에게 진짜로 악마가 병의되었을 지도 모른다는 공포와 불안감은 증폭된다. 이 지점에서 관객들이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었던 과학적 이성의 권위는 무너지고 두려움과 불안의 감정이 유발된다. 진짜 악마인지 가짜 악마인지 정확히 규명하지 못하는 부분에서 공포가 발생한다고 한 인용문의 서술은 이러한 의미이다.

이상의 서술 내용을 참고해 본다면, 근대적 질서를 바탕으로 한 현실 세계가 과학적 방식으로 설명하거나 제어할 수 없는 초자연적 현상을 마주하면서 발생하는 두려움의 감정이 기존의 한국 공포영화와 구별되는 오컬트 장르의 특징임을 알 수 있다. 바꿔 말하면, 과학적 사고를 바탕으로 한 근대적 세계관이 오컬트 장르 성립의 핵심적인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많은 오컬트 작품에서 의사, 병원, 사진기 등과 같은 과학 표상들이 중요하게 등장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⁹⁾ 작품 내에 등장하는 과학 표상들은 과학적 이성을 바탕으로 한 근대 사

9) 가령, <엑소시스트>(1973)와 함께 오컬트 장르의 대표적인 작품으로 꼽히는 <오멘>(1976)에서는 사진기가 중요한 대상으로 등장한다. 죽은 친아들 대신 같은 시각 병원에서 태어난 데미안을 친아들처럼 키우는 대사의 주변에서 자꾸 사람들이 사고로 죽는 일이 발생한다. 한 신부는 악마의 아들인 데미안의 짓이라고 한다. 그러나 사고들이 우연일 뿐이었던지, 정말 데미안의 저주였는지 증명할 방법은 없다. 그러나 한 기사가 찍은 사진들에 이상한 현상이 나타나 있는 것이 발견된다. 그리하여 사진기에 찍힌 사진과 사고와의 관계를 둘러싸고 이성적 범주의 상식과 그것을 벗어난 비상식 사이의 긴장이 발생한다.

회의 질서를 가시적으로 재현한다. 시대에 맞는 공포영화를 만들어야 한다는 인용문 (가)는 바로 기존 한국의 공포영화에 부족했던 근대적 표상 및 질서의 재현에 더욱 충실할 것을 요구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심령과학적인 방법과 기획”을 시대에 맞는 공포영화의 특징으로 언급하고 있는 점 역시 비슷한 맥락에서 살펴볼 수 있다. 본래 오컬트라는 것은 주술, 마법, 부적, 예언, 강신술, 점성술 같은 신비주의적 행위를 통틀어 일컫는 것이다.¹⁰⁾ 오컬트 영역은 영적인 세계가 실재한다고 믿으며 악마나 영혼 등과 관련된 초자연적 현상에 관심을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일견 전근대적 세계관으로 회귀하는 것처럼 보이며, 실제로 서구의 오컬트 문화를 ‘동양적인 신비적 종교’나 ‘원시 신앙’으로의 회귀로 보는 시각도 있다.¹¹⁾

그러나 연금술과 화학이 밀접한 관련을 지니고 있었던 것처럼 사실 오컬트 영역은 과학과 일부 영역을 공유하는 경우가 많았으며,¹²⁾ 근대에 이르러서는 적극적으로 자연과학의 용어나 이론을 끌어들이 대중들의 믿음을 공고히 하려는 움직임을 보였다. 대표적인 예로 심령과학은 스스로

10) 김태한, 『뉴 에이지 신비주의』, 라이트하우스, 2008, 137면.

11) 다음과 같은 신문기사들을 참고해볼 수 있다.

“단절된 전위·권위 세대... 도덕·가치관 달라 고민. 낙원만은 아닌 불안 속에 동양의 신비로 공허 달래”(『선진의 중환 앓는 미국』, 『경향신문』, 1970.10.19.)

“(…) 영화 <엑소시스트>는 많은 화제를 불러일으킨바 있는데 이것은 현대인의 마음속 어디엔가 도사리고 있는 원시적인 공포와 신앙이 작용했기 때문이라고 심리학자들은 풀이하고 있다.”(『엑소시스트』, 『경향신문』, 1975.5.20.)

12) 연금술은 서로 다른 금속을 결합시키면 어떤 결과물이 나오는지 다루기 때문에 화학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 하지만 자연과학과 달리 연금술은 인간과 광물, 우주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을 것이라 믿고 그것을 탐구하고자 하였으며, ‘철학자의 돌’과 같은 신비한 돌의 존재를 믿기도 하였다. 근대 초에 접어들면서 연금술은 갈수록 화학의 색채를 짙게 띠어갔으며, 약학과 의학에서도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자비네 되링만토이펠, 김희상 옮김, 『오컬티즘』, 갈리온, 2008, 52-71면 참조.)

‘과학을 자처하며 초자연적 현상들을 수집하고 체계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영적 세계의 존재를 증명하고자 한다. 그렇기 때문에 근대의 오컬트 문화는 과학주의적 문명에 반기를 드는 위치에 놓여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 부분 과학적 시각으로 신비주의적 현상에 접근하는 태도를 보여준다.

이러한 태도는 오컬트 영화 안에서도 마찬가지로 발견된다. <엑소시스트>의 경우 리간에게 썬 것이 정말 악령인지 아니면 그저 정신병적 행동인지 판단하는 과정이 서사의 진행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병원에서의 진단 과정뿐만 아니라 카라스 신부가 리간에게 가짜 성수를 뿌리고 반응을 지켜보거나, 악마와 문답을 하며 목소리를 녹음 하는 등의 장면이 모두 악마의 존재를 논리적으로 증명해 가는 과정들이다. 이러한 양상은 귀신이 직접 괴기스러운 모습으로 등장해 공포를 유발하거나 웃음소리를 통해 존재감을 과시하는 한국 공포영화의 양상과는 매우 다른 것이다. ‘심령과학적’이라는 용어 사용에서도 알 수 있듯 초현실적 현상에 대한 이성적 접근이 서구 오컬트 영화의 인상적인 특징으로 비추어졌던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오컬트적 소재는 근대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졌다고 유추해볼 수 있다.

이처럼 1970년대 미국의 오컬트 영화는 근대의 과학적 세계관을 작품의 중요한 한 축으로 삼는다는 점, 심령과학적 방법과 기획을 사용한다는 점 때문에 기존의 한국 공포영화와 차별화된 장르로 인식되었고, 이에 1970년대 한국에서도 정신이상, 빙의, 심령과학 등과 같은 새로운 소재를 사용한 오컬트 영화들을 제작하여 세계적 조류에 발맞춰 보고자 하였다. 그리하여 1970년대 중반 한국에서도 오컬트 장르의 영화가 등장하게 된다.

3. 오컬트 장르 수용의 사회문화적 배경

그런데 오컬트와 같은 비과학적 영역에 대한 관심은 영화계뿐만 아니라 이 시기 다른 문화적 영역에서도 적지 않게 발견된다. 따라서 한국에서의 오컬트 장르 수용은 영화계의 상황에 의한 것뿐만 아니라 당시의 사회문화적 맥락과도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

1950년대 후반부터 이어져 온 대중오락잡지 『명랑』¹³⁾을 살펴보면 1970년대 접어들어 흥미로운 현상을 관찰할 수 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역술인에 대한 광고 및 기사의 급증 현상이다. <한국역학 108인선안내>¹⁴⁾과 같은 역술인 소개 및 광고 코너가 여러 회에 걸쳐 연재 되는가 하면, 역술인과의 인터뷰 기사(<역학인과 차 한 잔의 대화>¹⁵⁾)나 역술인들에게 조언을 듣는 코너(<인기 역학인 초대석>¹⁶⁾) 등도 심심치 않게 발견된다. 그 외에도 『명랑』은 인간의 잠재의식을 통해 태아의 성별을 알 수 있는 방법¹⁷⁾, 병원에서 고치지 못한 소아마비를 척척 고친다는 지압 치료법¹⁸⁾,

13) 『명랑』은 1955년 12월 창간하여 1980년대까지 약 300호 이상을 발간한 인기 대중오락잡지이다. 신태양사에서 본격적인 취미오락전문지를 겨냥하여 발간하였다. (김지영, 「통속오락잡지 『명랑』을 통해 본 전후 사랑의 인식구조」, 『어문논집』 제68호, 민족어문학회 2013, 160-161면.) 1970년대를 대표하는 대중오락잡지로 『선데이서울』이 있으나, 1968년 9월에 발간되기 시작한 『선데이서울』과 달리 『명랑』은 1955년부터 연재되었기 때문에 1970년대를 전후하여 일어난 문화적 흐름의 변화를 살펴보는 데에 더욱 용이하다.

14) 「한국역학 108인선안내」는 『명랑』 1972년 4월호부터 등장하기 시작한 역술인 소개 겸 광고 코너이다.

15) 「역학인과 차 한 잔의 대화」, 『명랑』, 1972.4, 312-313면.

16) 「인기역학인 초대석」은 72년 7월호부터 등장한 코너로, 남편을 내조하는 법에 대한 역학자들의 조언으로 시작하였다. 후에 아내에 대한 조언을 넘어 삶에 대한 전반적인 조언을 하는 방향으로 나아간다.

17) 「쇼킹! 태아의 성별을 당신 마음대로」, 『명랑』, 1971.4, 192-193면.

18) 「도대체 믿겨지지 않은 일-소아마비를 척척 고친다는데」, 『명랑』, 1973.5, 162-165면.

할아버지의 계시를 받은 후 침술에 정통하게 되었다는 여성의 이야기¹⁹⁾ 등 현대 과학/의학의 영역 너머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소개하며 대중의 호기심을 자극한다. 이전 시기에는 좀처럼 보이지 않았던 이러한 경향의 광고나 기사의 증가는 1970년을 전후하여 대중들이 자연과학 바깥의 영역에 눈을 돌리기 시작했음을 보여준다.

1970년대 한국 오컬트 영화들이 주 소재로 삼았던 심령과학 역시 비슷한 시기에 수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한다. 물론 심령과학은 1880년대부터 이미 영국과 미국에서 존재했었고, 한국에서도 1924년의 신문기사에서 심령학에 대한 소개 글을 찾을 수 있다.²⁰⁾ 그러나 한국에서 심령과학 분야가 본격적으로 존재감을 드러내기 시작한 시기는 1970년대 접어들어서부터이다. 1972년 11월에는 금주의 베스트셀러 해외 비소설 부문 5위에 『심령과학』이라는 책이 랭크된 사실이 있으며,²¹⁾ 1973년에는 한국심령학회, 1975년에는 심령과학회가 설립되어 심령과학이 하나의 학문 분야로서도 영향력을 갖게 되었다.²²⁾

이 시기 현대 과학/의학의 바깥 영역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이유로 우선 주변 선진국들의 영향을 생각해볼 수 있다. 다음의 기사를 참고해 보도록 하자.

(가) 미국의 저명지 ‘시카고 트리뷴’ 지에 지난여름 <여름철의 12궁상담>이란 제목의 기사를 크게 실었던 것을 기억한다. 12궁이란 천궁을 구분하여 생일에 따라 백양 김우 쌍자 등의 이름을 붙여 별점을 치는 것으로 동양의 별점 12지와 같은 것이라 하겠다. 즉 천궁으로부터의 비밀지령, 주문 같은 것인바 최근 이와 같은 상담이 미국 내의 각 신문의 3분의 1페이지를 점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는 미국사람들이 마음의 공허를 느끼고

19) 「현몽에서 침술을 배웠다는데…」, 『명랑』, 1972.8, 132-135면.

20) 「심령현상」, 『동아일보』, 1924.10.22.

21) 「금주의 베스트셀러」, 『매일경제』, 1974.11.5.

22) 김봉주, 『정신의 원리』, 충남대학교출판문화원, 2011, 55면.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책방에 가면 <12궁>이니 <점성술>이니 하는 서적이 기독교 관계서적보다도 더 많이 눈에 띈다. <오컬트>(비학, 밀교)서적을 정치 역사책과 더불어 많이 발견할 수 있다.²³⁾

인용문 (가)는 <선진의 중환 앓는 미국>이라는 제목으로 신문에 실린 글의 일부분이다. 이 글은 1970년대 미국에서 하나의 대항문화로 오컬트 문화가 존재감을 드러내며 소비되고 있다는 사실을 기술하고, 그것에 대해 “미국사람들이 마음의 공허를 느끼고 있음”을 말해주는 현상이라고 분석한다. 1960년대 미국에서는 베트남전쟁과 냉전이 만든 사회적 불안, 기독교에 대한 환멸 등으로 인해 젊은이들을 중심으로 다양한 형태의 반문화 운동이 일어났고, 1970년대에는 그것이 서구의 비술적 전통, 형이상학적 사상, 동양사상 등을 바탕으로 한 뉴 에이지 사상으로 발전하기 시작하였다.²⁴⁾ 이분법적 사고를 벗어나 모든 것이 우주적 질서 아래 하나임을 깨달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뉴 에이지 사상은 종교 및 사회운동으로서 기능하였을 뿐만 아니라 일반 대중문화에도 광범위하게 침투하여 큰 영향력을 발휘하였다.²⁵⁾ 오컬트 문화의 번성은 이러한 흐름과 관련이 있다. 미국뿐만 아니라 일본에서도 비슷한 시기 뉴 에이지 사상의 영향으로 과

23) 「선진의 중환 앓는 미국」, 『경향신문』, 1970.10.19.

24) 이준수, 「대중문화에 나타난 뉴 에이지 사상의 특징」, 『만화애니메이션 연구』 제41호, 한국만화애니메이션학회, 2015, 5면.

25) 뉴 에이지 운동은 본래 만물이 신성한 힘을 공유하고 있다는 믿음을 바탕으로 한 대체종교의 하나로 시작되었으나, 영성을 개인의 수행에 따라 얼마든지 발전시킬 수 있는 것으로 간주하면서 점차 개인과 지구와 사회의 변형을 지향하는 국제적 사회운동으로 전환되는 움직임을 보인다. 이렇게 패러다임이 이동하게 되면서 뉴 에이지 운동은 점차 대중문화화 하는 양상을 보인다. 대체종교적인 특징은 여전히 뉴 에이지 운동의 중요한 특징이지만, 세속적 인본주의와 결합된 뉴 에이지 운동은 개인의 영성 개발, 치유, 건강 등의 영역과 연계되면서 대중문화 곳곳에 확산된다. (전명수, 「뉴 에이지 운동과 한국의 대중문화」,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논문, 2007, 52-78면 참조.)

학화 추세와 반대되는 초능력, 초자연적 현상이 대중문화에서 유행하였으며, ‘생태’나 ‘정신세계’를 강조하는 분위기가 생겨났다.²⁶⁾ 이처럼 당시에는 주변 선진국을 중심으로 대안적 가치체계를 추구하는 분위기가 팽배해져가고 있었고, 그러한 시대적 조류가 한국에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쳐 1970년대 한국의 대중들도 해당 영역에 관심을 갖게 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당시 한국의 근대화 상황을 고려해 본다면, 주변 선진국의 경우처럼 근대에 대한 회의적인 인식하에 대안 문화를 소비했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나) 우리는 오늘날 성장을 다 이루지도 못하고 본격적인 소비체제에 들어가지도 못했다. (중략) 우리는 하루 속히 후진을 극복해야하며 진보와 소비사회를 이루어야 할 사명의 연대에 처해있다. 그러나 선진이 가져오는 미국의 비극을 상기할 때 자칫하면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는 서구사조를 재점검하고 발전과 미풍을 같이 누릴 수 있는 낙토를 이루어야 할 것이다.²⁷⁾

인용문 (나)는 인용문 (가)와 같은 글의 뒷부분이다. 서구 사조의 무비판적 수용은 지양해야 한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하루속히 후진을 극복해야하며 진보와 소비사회를 이루어야 할 사명의 연대에 처해있다.”라는 서술에서는 여전히 근대화에 대한 강한 열망이 보인다. 대표적인 근대화 사업의 하나인 새마을 운동이 진행되었던 시기도 비슷한 시기였다. 농촌을 주요 대상으로 삼았으나 도시를 비롯한 전 사회 영역으로 확대된 새마을 운동은 농촌의 경제를 살린다는 측면에서는 실패하였으나 대중들을 근대적 국민으로 개조하는 데에는 상당히 성과를 거둔 운동이었다.²⁸⁾ 여기

26) 최석진, 『일본SF의 상상력』, 그노시스, 2010, 147면.

27) 「선진의 중환 앓는 미국」, 『경향신문』, 1970.10.19.

에 더해, 이 시기는 과학정책이 적극적으로 추진되던 시기이기도 하였다. 박정희 정부는 1960년대 중후반부터 경제개발과 국가안보를 과학기술과 연동시키며 과학 진흥 정책에 박차를 가하기 시작하였으며, 1973년부터는 전 국민의 과학화 운동을 전개하였다.²⁹⁾ 전 국민의 과학화 운동은 사고방식, 생활 습성 등 일상생활에서의 과학화를 강조하며 과학기술을 삶의 핵심 원리로까지 격상시킨 것이었다.³⁰⁾

이처럼 우리나라에서 신비주의 영역이 적극적으로 고개를 들기 시작했던 1970년대는 그 어느 때보다 근대국가에의 욕망 아래 과학과 기술, 그리고 과학적 사고의 중요성이 강조되던 시기였다. 물론 이것을 급격한 근대화의 진행에 따른 문화적 반작용 현상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좀 더 섬세한 이해를 위해서 당시 우리나라에서의 뉴 에이지 문화 소비 현상을 다층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 다음의 글을 참고해 보도록 하자.

(ㄷ) 세대의 지류는 문명의 이기를 낳고 변모돼 가고 있다. 하나의 예견자를 자처하던 복술은 현대 사회에선 이미 사라져 가고 있다. 보다 학문에 의한 역학은 결코 퇴색돼 버린 복술과는 그 의미가 다르다. 때문에 역학이 미치는 사회의 공헌도는 항시 이웃과 함께 있다. 여기 새로운 형태로 학문에 의한 역술인과 대화를 함께 해 본다.³¹⁾

(ㄹ) 뱃속에 든 아이의 성별을 분별하는 ‘이데오 모터법’이 우리나라에도 상륙했다는 소식이다. (...) 이데오 모터법의 방법은 가로선과 세로선을 교

28) 새마을 운동이 실제 농민들의 의식 변화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는 문상석, 「새마을운동과 정신개조」, 『사회이론』 제38호, 한국사회이론학회, 2010 참조.

29) 문만용, 「박정희 시대 담화문을 통해 본 과학기술정책의 전개」, 『한국과학사학회지』 제34권 1호, 한국과학사학회, 2012, 83-84면.

30) 문만용, 위의 글, 98-102면.

31) 「역학인과 차 한 잔의 대화」, 『명량』, 1972.4, 312면.

차시켜 열십자가 되도록 그려 놓는다. 가로선은 ‘그렇다’ 세로선은 ‘아니다’로 표기한다. 그 후 20센치 정도의 실 끝에다 추를 달아 손으로 들고 십자의 교차점에 맞춘다. 이때부터 모든 잡념과 사심을 털어 내고 정신통일로 들어가야 한다. 얼마의 시간이 지나면 자연 정신이 모아지게 되며 이때 상대방이 아들이냐 하고 물을 때 순간적으로 그런 것 같으면 ‘그렇다’쪽으로 아니면 ‘아니다’쪽으로 실을 움직여 표시해주는 것이다. 5회 이상 해서 많은 대답이 나온 것이 출산 후 성별이게 되는 방법. (...) 백발백중 맞아든 이 ‘이데오 모터법’의 과학적인 신빙성과 통계는 정확한 것으로 판명되었다. 선무당이 복채를 받아듣고 신나게 흔들며 대며 점을 치는 미신이 아닌 이상 이 방법은 과학적인 통계에 의한 것이다.³²⁾

인용문 (ㄷ)는 『명랑』지의 기자가 역술인을 만나 인터뷰한 글의 일부분이다. 이 글은 문명이 발달해 감에 따라 복술(점술)은 현대사회에서 퇴색해 버렸지만 체계적인 학문에 기초한 역술은 사회에 공헌한다고 하며 역술을 긍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 이밖에 “학술을 과학적 체계로 발전시킨 엘리트 역학자”³³⁾나 “정확한 감정에 의한 과학적이고 올바른 여러분의 운명개척”³⁴⁾과 같은 수식으로 역술인을 홍보하는 광고도 눈에 띈다. 다음으로 인용문 (ㄹ)는 임신부의 잠재의식 반응을 통해 태아의 성별을 감별해낼 수 있다는 ‘이데오 모터법’에 대해 소개하고 있는 글이다. 인간의 잠재의식이라는 모호한 영역에 기대고 있지만 ‘이데오 모터법’은 무당의 점과 달리 과학적인 통계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위의 인용문들은 역술이나 최면심리학이 하나의 과학이기 때문에 유용하다고 주장한다. 근대 과학의 바깥 영역이라고 볼 수 있는 분야가 전 근대를 표상하는 무당과의 비교를 통해 과학의 지위를 획득하며 우월한 위치에 놓이고 있는 것이다. 엄밀하게 본다면 샤머니즘의 영역 역시 뉴

32) 「쇼킹! 태아의 성별을 당신 마음대로」, 『명랑』, 1971.4, 192면

33) 「한국역학108인선안내」, 『명랑』, 1972.5.

34) 「특집 서울에 등장! 일본사주 전공한 최초의 교포여류」, 『명랑』, 1973.12.

에이지 사상과 밀접한 관련을 지닌다.³⁵⁾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무당=비과학=열등한 것’, ‘역술(혹은 최면심리학)=과학=선진적인 것’으로 보는 인용문의 시각을 통해 당시 우리나라에서의 뉴 에이지 문화 소비는 발전에의 욕망과 함께 과학의 권위가 한창 확산되어갔던 시대적 분위기와 무관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근대화에 대한 반작용으로 서구에서 뉴 에이지 운동이 일어났고, 그러한 맥락에서 근대 과학의 힘이 미치지 못하는 초자연적 영역이 가치를 지닌다는 사실을 인식하고는 있었지만, 실제 우리나라 대중들이 뉴 에이지 문화를 소비함에 있어서는 그것이 지니는 반근대적 의미보다 과학적 합리성의 측면에 더욱 가치가 부여되고 있었던 것이다. 물론 그렇다고 하여 뉴 에이지 영역이 근대 과학의 권위에 힘입어 주류 문화의 위치를 점하였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당시 사회문화 제반 영역에서 상승하고 있었던 과학의 권위가 신비주의 문화를 소비하는 데에도 예외 없이 작용하고 있었음은 분명해 보인다.

이와 같은 현상은 서구의 오컬트 영화를 ‘선진적인 것’으로 받아들이고 소비했던 당시 영화계의 상황과도 맞아 떨어진다. 앞 장에서 살펴보았듯, 오컬트 영화가 유발하는 공포의 핵심은 초자연적 세계의 가능성을 열어놓음으로써 과학적 이성에 대한 관객들의 믿음에 균열을 내는 데에 있다. 가령, <엑소시스트>의 경우 리간의 증상을 합리적 이성으로 이해해 보려는 시도가 지속적으로 실패하는 상황을 통해 긴장감을 조성한다. 그러나 한국의 공포영화는 주로 야화나 전설의 전근대적 세계관을 바탕으로

35) 뉴 에이지 운동은 인간이 지금까지와 차원이 다른 새로운 세계를 맞이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신비주의를 바탕으로 총체주의, 의식화 운동, 환경보호운동, 여성운동 등에 관심을 둔다. (김중순, 「뉴 에이지와 샤머니즘」, 세계문제연구소 편, 『한민족 문화의 세계화』, 세계문제연구소, 1990, 439면.) 샤머니즘의 경우 샤먼이 가졌던 총체적 의식과 영적인 능력의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그것이 지닌 여성적 성질들이 오늘날의 남성중심 사회에 대한 대항이 될 수 있다는 여성주의의 맥락에서 뉴 에이지 사상가들의 주목을 받았다. (같은 글, 443면.)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근대 비판의 의미를 담기 이전에 근대적 질서의 세계를 영화 안에 재현해 내는 것이 우선적인 과제가 될 수밖에 없었다. 앞장의 인용문에서 ‘우리 생활에 직결’되고 ‘시대성에 맞는’ 공포영화의 제작을 요구했던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다시 말해, 1970년대 한국에서의 뉴 에이지 문화 수용은 오히려 그것의 근대적 합리성에 무게가 놓이는 역방향적인 수용 양상이 존재하고 있었고, 1970년대 중후반 등장한 한국 오컬트 영화 역시 그러한 모순적인 지점에 존재하고 있었다고 말할 수 있겠다.

4. <너 또한 별이 되어>(1975)와 한국 오컬트 영화

앞에서 살펴보았듯 우리나라에서 오컬트 영화는 근대적 소재와 배경을 취하고, 과학주의적 시각으로 초현실적 현상을 다룬다는 점에서 ‘선진적인 공포영화 장르’로 인식되었다. 그리하여 1970년대 중반에는 기존 공포영화의 한계를 벗어나 보고자 우리나라에서도 오컬트 영화를 제작하기 시작한다. <정형미인>(1975), <너 또한 별이 되어>(1975), <영노>(1976), <원무>(1976) 등이 한국 오컬트 영화의 초창기 작품들이다. 이 작품들은 서구 오컬트 영화, 특히 <엑소시스트>의 소재나 인상적인 장면을 모방함으로써 서구적 근대를 추수(追隨)하고자 하는 욕망을 드러낸다. 그러나 오랜 시간 기독교 문화를 바탕으로 해 온 서구와의 문화적 차이 및 기존 서사 관습의 영향 등으로 인해 장르의 수용과정에서 ‘한국적인 변용’이 일어나기도 한다. 이 장에서는 구체적인 작품을 통해 한국 오컬트 영화의 초기 양상을 살펴볼 것이다. 논의는 영상이 확인 가능한 <너 또한 별이 되어>를 중심으로 진행하되, 시나리오로만 확인이 가능한 <영노>와 <원무>는 보조적으로 참고할 것이다.³⁶⁾

이 장에서 중점적으로 살펴볼 <너 또한 별이 되어>(1975)는 <별들의 고향>으로 큰 성공을 거둔 이장호 감독의 작품이다. 우선 줄거리를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복권에 당첨된 상규의 가족은 한 단독주택으로 이사를 간다. 그러나 이사 후 상규의 딸 윤정에게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결국 윤정은 발작을 일으켜 병원에 실려 간다. 병원에서 수많은 검사를 해 보지만 병의 원인을 알아내지 못한 채 윤정의 증상은 점점 심해진다. 결국 상규와 아내는 윤정을 정신병 전문의이자 심령과학자인 한 박사에게 데려간다.

한편, 그러한 와중에 상규의 주변에는 우연히 알게 된 미우라는 여성이 자꾸 나타난다. 아이 같은 순진무구함을 지닌 그녀는 상규의 무거운 마음을 잠시나마 위로해 준다. 하지만 사실 미우는 사랑하는 남자에게 버림받고 다른 사내들에게 겁탈을 당한 뒤 자살한 원혼이었다. 그녀는 자신이 죽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채 윤정의 몸에 남아 남성들에게 복수를 하였고, 미우 및 그녀에게 죽은 남성들의 영혼에 의해 윤정의 상태가 이상해졌던 것이다. 이에 한 박사의 요청으로 영국의 심령학자 클리프 박사와 일본인 영매가 윤정에게 엑소시즘을 행하고, 결국 아이가 정상으로 돌아오며 영화는 끝난다.

이 작품은 <엑소시스트>와 설정이나 장면이 유사한 부분이 많은데, 그중에서도 근대의 과학주의적 질서를 의미 있게 재현하고자 노력한 부분이 눈에 띈다. 우선, 이 작품에는 <엑소시스트>의 한 장면과 유사하게 상규의 딸 윤정이 뇌파 검사, 엑스레이 촬영, 뇌동맥 촬영과 같은 여러 단계의 검사를 받는 장면이 묘사되어 있다. 이렇게 묘사된 병원 장면은 고도로 발달한 과학의 권위를 시각적으로 형상화함으로써 근대 문명의 경이로움을 전시하는 역할을 한다. 하지만 여기에서 과학의 권위가 반드

36) <정형미인>(1975)의 경우 영상이 남아있긴 하지만 동시대 한국 오컬트 영화의 일반적인 특징을 보인다고 보기 어려워 주요 분석 대상에서는 제외하였다.

시 긍정적으로 그려지고 있는 것만은 아니다. 검사의 과정은 윤정의 신체에 일종의 폭력으로 작용한다. 커다란 바늘이 들어가고, 피를 뽑아내며 고통스러워하는 윤정의 모습을 부모는 그저 무력하게 지켜볼 수밖에 없다. 이 지점에서 의학은 오히려 개인에게 두려운 권력이 된다. 그리고 의사들은 결국 뚜렷한 원인을 밝혀내지 못하며 과학/의학의 한계를 드러낸다.

주요 서사 진행과 큰 관계는 없지만 <엑소시스트>와 마찬가지로 형사가 사망 사건의 범인을 추적하는 장면을 연출하고 있다는 점 역시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일반적인 한국의 원귀형 공포영화는 여귀의 억울한 사연과 복수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기 때문에 악인의 죽음은 인과응보의 관점에서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며, 그 죽음의 과정이나 원인에 대한 관심은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너 또한 별이 되어>에서는 죽은 미우가 저지른 살인이 원인과 결과를 밝혀야 할 하나의 사건으로 근대적 경찰제도의 시선 안에 포착된다. 과학수사본부는 여러 가지 정황을 통해 사망자의 사망 원인이나 시체의 상태 등을 객관적으로 분석한다. 하지만 그렇게 함과 동시에 이 사건이 논리적인 인과관계만으로는 풀리지 않을 불가사의한 사건이라는 점도 더욱 분명해진다. 이처럼 <너 또한 별이 되어>는 실제 현실에서 작동하고 있는 과학주의적 질서를 적극적으로 끌어 들여오는 동시에 그것의 한계 지점을 명확히 하며 긴장감을 이끌어내는 <엑소시스트>의 전략을 비슷하게 모방한다.

비슷한 양상을 같은 시기의 한국 오컬트 영화 <영노>(1976)와 <원무>(1976)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영노>에서는 과거 세형이 죽인 전부인 인옥의 모습이 현 부인인 현애의 눈앞에 자꾸 나타나지만 병원에서는 이상이 없다고 하며, 그 외에도 형사가 사건에 대해 조사를 한다든가, 사진 속에 귀신의 모습이 포착된다든가 하는 장면이 등장한다. 또한 <원무>에서는 고고학 박사 동혁이 무당의 미라를 발견한 이후 아내가 갑자기 무당의 춤을 추는 등 이상한 행동을 보여 뇌병원에서 진단을 받는 장

면이 그려진다. 이러한 장면들에서는 필연적으로 의학 장비, 혹은 사진기 등의 과학적 표상들이 등장하여 근대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에 일조한다. 또한 해당 장면들은 초자연적 현상에 대해 기존 공포영화와 차별화된 시각을 제시해 주는데, 귀신의 조화로 초자연적 현상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매우 뚜렷하게 보여주었던 기존의 한국 공포영화와 달리 오컬트 영화에서는 불가해한 현상의 원인을 규명해 가는 과정이 덧붙여지는 것이다. 이러한 장면들은 ‘시대성에 맞는’ 작품을 만들어야 한다는 영화계의 요구에 부응하여 근대 과학의 표상 및 질서를 적극적으로 재현하고자 시도한 장면들이라 할 수 있겠다. 기존의 한국 공포영화에서는 거의 볼 수 없었던 이상의 장면들은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근대와 과학에 대한 관심을 강하게 드러낸다.

<엑소시스트>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신부가 <너 또한 별이 되어>에서는 ‘심령학자로 대체되어 등장한다는 사실도 흥미롭게 살펴볼 만하다. <너 또한 별이 되어>의 후반부에서 엑소시즘 의식을 행하는 영국의 클리프 박사는 신부와 유사한 복장을 하고 있다. 그러나 그는 사실 신부가 아니라 심령학회에 소속된 심령학자이다. 윤정을 클리프 박사에게 소개해 주는 한 박사 역시 정신과 의사이자 심령과학에 조예가 깊은 심령학자이다. 즉, 기독교 표상은 서구적인 분위기의 연출을 위해 부분적으로만 사용될 뿐, 실질적으로는 심령과학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 지점에서 <엑소시스트>가 처음 한국에 수입될 당시 제목이 <무당>이었다는 사실을 상기해 볼 필요가 있다. 주지하다시피 전통적인 한국의 귀신담 속 여귀들은 대부분 억울하게 죽은 원귀들이며, 이에 단순한 퇴치가 아닌 해원으로 그 결말이 맺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사탄의 개념으로 귀신을 묘사하는 <엑소시스트>의 기독교적 세계관은 우리나라의 문화 관습상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엑소시스트>가 <무당>으로 번역된 사실로 미루어볼

때 신부의 엑소시즘 활동은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무당의 행위와 비슷한 차원에서 받아들여졌고, 이에 신부와 같이 서구적 이미지를 지니면서도 무당과 유사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심령과학자가 신부의 역할을 대체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서사 전개와 전혀 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영화 안에서 인상 깊게 그려지는 강령의식 장면은 바로 이 “현대판 무당”³⁷⁾으로서의 심령학자의 위치를 잘 보여준다. 영화 안에서 심령학자 한 박사는 강령의식을 주재함으로써 영혼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준다. 타계한 시인의 혼령을 불러달라는 한 박사의 말과 함께 영매의 몸에서는 엑토플라즘³⁸⁾ 현상이 일어나고, 신비스러운 분위기는 한껏 고조된다. 하지만 한편으로 영매의 옆에서 돌아가는 녹음기는 심령과학이 기반하고 있는 과학적 실증주의의 태도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며 강령의식을 전근대적인 미신 행위와 구분한다.

심령학자의 등장은 <너 또한 별이 되어>뿐만 아니라 <영노>와 <원무>에서도 역시 찾아볼 수 있는 특징이다. 전술하였듯 두 작품에서는 주인공의 아내들에게 이상 증상이 나타나 병원을 찾아간다. 하지만 <너 또한 별이 되어>와 마찬가지로 병원에서는 뚜렷한 해결책을 얻지 못하고 심령학자의 도움을 받는다. 즉, ‘주인공의 주변인에게 이상한 증상이 나타남 → 병원을 찾아가나 해결하지 못함 → 의학적 영역 대신 심령과학적 영역에 의지하여 문제를 해결함의 패턴이 반복되는 것이다. 이러한 진행 과정 안에서 자연과학의 권위는 자연스럽게 대안적 영역인 심령과

37) <원무>(1976)의 시나리오에는 심령학자를 “현대판 무당”이라 칭하는 대사가 등장한다. 이를 통해 심령학자를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았는지 알 수 있다.

38) 엑토플라즘이란 영매의 몸에서 나오는 어떤 특수한 물질을 일컫는 말이다. 영매의 입, 콧구멍, 눈, 발목 등 피부가 얇은 데에서 나오며 나올 때 오존과 같은 냄새가 난다고 한다. 엑토플라즘 현상은 영(靈)의 물질화로, 물리적인 심령현상의 하나이다. (궁택호웅, 안동민 옮김, 『심령과학』, 서음출판사, 2010, 132-135면.)

학 분야로 넘어간다.

전술하였듯 도시화산업화 과정에서 발생한 불안함은 근대 문명에 대한 대중들의 불신을 높였고, 이에 대중들은 해외의 뉴 에이지 문화 흐름과 함께 역술이나 심령과학과 같은 대안적 분야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였다. 하지만 동시에 정부의 과학정책 강화 및 과학적 사고의 강조는 과학계몽을 대중적으로 보편화함으로써 대중들이 신비주의적 영역을 ‘과학의 측면에서 재구성해 받아들이는 데에 기여하였다. 그리하여 무당, 미신과 같은 영역은 ‘낡은 것이 되어버린 대신 과학의 외피를 입고 있는 역술, 최면술, 심령과학 등의 분야가 또 하나의 과학으로서 영향력을 갖게 된다. 한국 오컬트 영화 속 심령학자의 등장은 이러한 양상을 반영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리하여 작품 안에서 심령학자는 비과학적 영역과 맞닿아 있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의사와 거의 동등한 위치에 놓이며 주도적으로 문제를 해결한다. <너 또한 별이 되어>의 한 박사, 그리고 <원무>의 유 박사가 심령학자인 동시에 정신과 전문의라는 사실은 심령과학이 과학/의학의 영역과 비슷한 위상을 갖고 있음을 잘 보여주는 예이다.

한편, <너 또한 별이 되어>는 기존 공포영화와 차별화된 오컬트 형식의 공포물을 추구하는 와중에도 여전히 익숙함을 통해 관객들에게 친숙하게 다가간다. 서브플롯으로 진행되는 미우의 이야기가 바로 그것이다. <너 또한 별이 되어>의 미우는 여러 남성들의 폭력을 겪으며 지속적인 상실과 삶의 하락을 경험한다. 미우는 사랑하는 남자와 함께 음악을 하는 것이 꿈이었다. 그러나 미우가 사랑했던 그 남자는 자신이 성공하자 미우를 냉정하게 떠나버리고, 버림받은 미우는 설상가상으로 다른 남성들에게 겁탈까지 당한다. 이후 쇼걸로 전락해 우울한 삶을 살다가 임신 사실을 알게 된 미우는 결국 자살로 생을 마감한다. 남성들의 폭력에 의해 추락하는 미우의 이야기는 일종의 여성 수난 서사라고 볼 수 있다. 자살이지만 사실상 타살에 가까운 미우의 죽음은 깊은 한을 남기고, 그것

은 여귀의 등장으로 이어진다.

여기에 더해, 이 작품은 억울하게 죽은 여성의 혼이 저승에 가지 못하고 남아 복수를 행하다가 그 한을 풀 후에야 승천하게 된다는 기존 한국 공포영화의 틀을 그대로 가져온다. 영화의 후반부에서 심령학자 클리프 박사는 윤정에게 빙의된 미우의 혼령에 접속하여 영계로 돌아가라고 설득한다. 처음에 미우는 자신의 죽음을 부정하며 자신을 망쳐놓은 자들에게 복수를 해야 한다고 말한다. 하지만 곧이어 스크린에는 그녀의 삶을 죽음으로 이끈 결정적인 몇 장면이 플래시백으로 재현된다. 감추어져 있던 그녀의 사연을 영상으로 마주한 관객들은 서정적인 분위기를 자아내는 배경 음악과 함께 애도의 감정을 느끼게 된다. 그렇게 잠시나마 한을 해소하는 과정을 거친 미우는 플래시백 장면이 끝난 후 나비가 되어 하늘로 날아간다. 물론 클리프 박사가 행하는 엑소시즘이 일종의 ‘퇴치’의 형태를 취하고 있기는 하지만, 미우의 한을 들어준 뒤 떠나보내는 방식은 한 많은 영혼을 달래서 내보내는 것에 가까우며, 이는 곧 형태만 바뀌었을 뿐 여귀의 한을 풀어주어 하늘로 보내는 기존 공포영화 서사의 연장선상에 놓여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비슷한 양상을 <영노>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영노>에서는 심령학자 백소장의 부름을 받은 인옥이 사람들 앞에 나타나 자신이 죽은 이유를 알려준다. 이에 세형이 모든 사건의 범인이라는 사실이 밝혀지며, 백소장이 인옥의 시신을 찾아 묻어주는 것으로 영화는 끝난다. <원무>의 경우 심령학자 유 박사가 여귀가 아닌 주인공의 죽은 아버지를 불러내고, 여귀가 불교의 힘에 의해 퇴치된다는 점에서 조금 다른 양상을 보이지만, 모든 사건의 주범이 결국 주인공의 조상에게 원한을 품고 죽은 여귀라는 점에서 공통점을 갖는다.

이 지점에서 한국 오컬트 영화는 한국 공포영화의 고유한 특징을 드러낸다. 기독교적 문화를 배경으로 하는 서구 오컬트 영화의 경우 불안정한 사회 질서에 의해 야기된 대중들의 두려움은 신과 대립하여 인간을

타락시키는 사탄의 모습으로 코드화되어 나타났다. 반면 한국의 오컬트 영화에서는 공안 서사의 전통 아래 그것이 여귀의 형태로 코드화된다. 가령, <너 또한 별이 되어>의 미우는 남성적 폭력의 희생자이지만, 한편으로 가부장을 중심으로 한 가족제도의 틀에서 이탈한 불온한 존재이기도 하다. 따라서 한 가정의 행복을 무너뜨리는 그녀의 원혼은 젊은 여성들의 성적 방종에 대한 기성세대의 매혹과 두려움을 담지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³⁹⁾ 그러나 공안 서사는 '비정상성'을 지닌 여귀를 권선징악이라는 서사적 틀을 통해 다시 '정상적인' 질서로 돌려놓음으로써 귀신에 투영된 두려움의 감정을 완화하는 기능을 한다.⁴⁰⁾ <너 또한 별이 되어>에서도 경아에 의해 발생한 혼란은 그녀의 억울한 죽음에 대한 공감과 승인의 절차를 거치며 사라진다. 이때 심령학자는 영혼의 목소리를 이끌어 내주는 무당과 유사한 역할을 담당한다. 하지만 여성성, 전근대적 표상과 밀접한 관계를 맺는 무당과 달리 과학의 권위를 이어받은 심령과학은 남성성, 근대적 표상과 결부되며 가부장의 위치에 놓인다. 그리하여 한국 오컬트 영화 안에서 심령학자는 마치 공안 서사 안의 사또처럼 귀신의 호소를 들어주고, 더 나아가 어지러워진 질서를 다시 정상으로 되돌리는 역할을 한다. 다시 말하면, 가부장적 질서에서 이탈한 여성들에 대한 매혹과 두려움의 감정을 귀신의 형상에 투영해내는 한편 그녀들의 비정상성을 권선징악의 형태로 현세의 질서 안에서 다시 정상화시키는 전통적 귀신담의 특징이 한국 오컬트 영화에서도 심령학자라는 새로운 남성적 권력의 인물을 통해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이상의 사실들을 통해 기본적으로 오컬트 영화와 유사한 서구적, 근대적 감각의 재현을 지향하는 와중에 우리나라 대중들에게 익숙한 방식으로 서사 및 소재를 변용하는 한국 오컬트 영화의 양상을 볼 수 있다.

39) 백문임, 앞의 책, 2008, 139면.

40) 한국 공포영화 서사의 한 원천으로서 공안 이야기가 갖는 특징에 대해서는 위의 책, 150-157면 참조.

5. 나가며

이상으로 한국 오컬트 영화 장르의 등장을 추동한 사회문화적 맥락 및 초창기 작품의 양상을 살펴보았다. 여전히 전통적인 스타일의 여귀 영화가 많이 제작되고 있었기 때문에 한국 오컬트 영화를 당시 공포영화의 주류였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1970년대 중후반 등장한 한국 오컬트 영화는 기존 공포영화와 차별화되는 새로운 감각의 재현을 시도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또한, 이후에도 심령과학적 소재의 작품들은 명맥이 끊어지지 않고 꾸준히 이어진다. 따라서 1970년대 중후반 등장한 한국의 오컬트 영화는 연구할 필요성이 있다.

우리나라에서 오컬트 영화가 등장하게 된 계기는 <엑소시스트>의 전세계적 흥행이었다. 서구의 오컬트 영화에 깊은 인상을 받은 우리나라 영화계는 진부하다고 비판받던 한국 공포영화의 상황을 타개하기 위하여 오컬트 형식의 작품을 시도한다. 그런데 이때 중요하게 짚어보아야 할 점은, 우리나라의 경우 오컬트 영화 장르가 서구의 경우와 전혀 다른 맥락에서 소비되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서구에서는 오컬트 영화가 뉴 에이지 문화의 확산과 함께 반근대·반문명적 의미로 소비되었던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기존 한국 공포영화의 전근대성을 탈피하게 해줄 ‘근대적인 장르’로 더욱 주목을 받았던 것이다. 이는 1970년대 우리나라의 사회문화적 상황과도 무관하지 않다. 우리나라에서 오컬트 영화가 등장하기 시작한 시기는 유신정권 하에 근대화 정책 및 과학정책이 어느 시기보다 적극적으로 추진되던 때였다. 이러한 사실을 고려한다면, 발전에의 욕망과 함께 과학의 권위가 확산되어 갔던 시대적 분위기가 오컬트 영화의 수용에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쳐 오컬트 장르가 지닌 근대적인 특성에 더욱 주목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초창기 한국 오컬트 영화의 위치는 고딕SF영화 장르와 비교해 보면 좀 더 선명해진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1960년대 등장하였던 고딕SF영화는 과학에 대한 두려움의 감정을 담고 있던 장르로, 1960년대 후반 이후 과학적 계몽이 보편화 되고 광포한 근대화에 대한 대중들의 불안이 완화되자 곧 그 의미를 잃고 사라진다.⁴¹⁾ 대신 그 뒤를 이어 등장한 것이 바로 오컬트 영화이다. 1970년대 중후반 등장한 한국의 오컬트 장르는 근대 과학에 대한 순진한 믿음에 의구심을 제기한다는 점에서 고딕SF영화와 공통점을 갖는다. 그러나 고딕SF영화가 근대 과학에 대한 불신과 두려움의 감정을 표출하고 있었던 반면, 한국 오컬트 영화는 그것에 대한 강한 신뢰를 바탕으로 초자연적인 영역까지 과학적 시선에서 다루고자 하는 태도를 보인다. 이와 같은 태도의 변화는 과학적 계몽이 보편화 되었던 1970년대의 사회문화적 상황과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1970년대 한국 오컬트 영화의 대표적인 작품으로 <너 또한 별이 되어>(1975)가 있다. 이상 증상을 보이는 아이를 병원에서 면밀히 진단하는 장면이나 형사의 수사 장면 등은 기존 한국의 공포영화에서는 볼 수 없었던 장면으로, <엑소시스트>의 인상적인 장면을 모방하여 근대적 표상 및 질서를 작품 내에 재현해 보고자 하였음을 알 수 있다. 심령학자를 등장시키고 있는 것 역시 초현실적 현상을 ‘과학의 틀에서 다루어 보고자 한 새로운 시도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특징들은 ‘시대성에 맞는’ 작품을 만들어야 한다는 영화계의 요구에 부응하고 있는 것이며, 이때 심령과학은 무당이나 미신과 다른 또 하나의 과학으로써 영향력을 갖는다. 하지만 기존의 서사 및 문화 관습의 영향으로 한국 공포영화만의 고유한 특징이 나타나기도 한다. 기독교적 의미의 악령이 여귀로 대체되고 퇴치가 아닌 해원(解冤)으로 결말을 맺는 것이 그것이다. 이 지점에서 한국 공포 영화가 서사적 원천으로 삼아왔던 공안 서사의 특징을 찾아볼 수 있으며,

41) 송효정, 「실험실의 미친 과학자와 제국주의적 향수 - 1960년대 한국 고딕 SF영화 연구」, 『대중서사연구』 제20권 3호, 대중서사학회, 2014, 302면.

이때 심리학자는 여귀의 비정상성을 현세의 질서 안에서 다시 정상화시키는 남성 권력의 역할을 한다. 비슷한 특징을 같은 시기의 다른 오컬트 영화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기존 공포영화의 관습과 서구 오컬트 영화의 특징이 혼합된 초창기 한국의 오컬트 영화는 사실 전근대/근대/탈근대가 맞물리는 복잡다기한 문화의 혼합지대에 놓여있는 장르 양식이라 보는 것이 정확할 것이다. 그러나 본고에서는 오컬트 영화가 전근대적인 기존의 여귀형 공포영화와 차별화되는 근대적인 장르로 인식되었다는 점, 그리고 당시 한국 사회의 분위기가 아직 근대를 향한 열망의 감정을 강하게 드러내고 있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과학이라는 문제영역을 중요한 요소로 고려하면서 초창기 한국 오컬트 영화를 살펴보았다. 이상에서 살펴본 사실들을 통해 우리나라에서 오컬트 영화의 등장은 단순히 서구 문화의 모방이 아니라 당시의 사회문화적 상황과 맞물리며 나름의 독자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참고문헌

1. 기본자료

<엑소시스트> (윌리엄 프리드킨, 1973).

<정형미인> (장일호, 1975).

<너 또한 별이 되어> (이장호, 1975).

<영노> (이성구, 1976).

<원무> (박윤교, 1976).

『명랑』, 『영화잡지』.

『경향신문』, 『동아일보』, 『매일경제』.

2. 단행본

- 궁택호웅, 안동민 옮김, 『심령과학』, 서음출판사, 2010.
김태한, 『뉴 에이지 신비주의』, 라이트하우스, 2008.
김봉주, 『정신의 원리』, 충남대학교출판문화원, 2011.
백문임, 『월하의 여곡성』, 책세상, 2008.
자비네 되링만토이펠, 김희상 옮김, 『오컬티즘』, 갈리온, 2008.
장병원·김광철, 『영화사전』, MEDIA2.0, 2004.
최석진, 『일본SF의 상상력』, 그노시스, 2010.

3. 논문

- 김중순, 「뉴 에이지와 샤머니즘」, 세계문제연구소 편, 『한민족 문화의 세계화』, 세계문제연구소, 1990.
김지영, 「통속오락잡지 『명랑』을 통해 본 전후 사랑의 인식구조」, 『어문논집』 제68호, 민족어문학회 2013.
문만용, 「박정희 시대 담화문을 통해 본 과학기술정책의 전개」, 『한국과학사학회지』 제34권 1호, 한국과학사학회, 2012.
문상석, 「새마을운동과 정신개조」, 『사회이론』 제38호, 한국사회이론학회, 2010.
박필현, 「꿈의 70년대의 청춘, 그 애도와 위안의 서사」, 『현대소설연구』 제56호, 한국현대소설학회, 2014.
송효정, 「실험실의 미친 과학자와 제국주의적 향수 - 1960년대 한국 고딕SF영화 연구」, 『대중서사연구』 제20권 3호, 대중서사학회, 2014.
이순진, 「한국 괴기영화의 변화과정에 대한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1.
이준수, 「대중문화에 나타난 뉴 에이지 사상의 특징」, 『만화애니메이션연구』 제 41호, 한국만화애니메이션학회, 2015.
전명수, 「뉴 에이지 운동과 한국의 대중문화」,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7.

Abstract

A study on the initial acceptance of occult genre in Korean horror movies

Han Sangyun

While traditional Korean horror movies had been criticized for similar stories, the occult movie from Hollywood, *The Exorcist* (1973), which was popular around the world, influenced on Korean movie industry, and occult movies also appeared in Korea. However, the sociocultural context of occult movies in Korea was different from the case in the West. Occult movies in the West were accepted as part of a culture of New Age, which is based on anti-modernism. On the other hand, in Korea, occult movies were considered as 'a modern genre' that would help us break away from the pre-modernism in traditional Korean horror movies. Given the fact that Korean society in the 1970s stressed the importance of science, technology, and scientific thinking more than ever before, it could be said that the public interest in modernity or modernization was one of the most important sociocultural factors relevant to occult movies in Korea.

One of representative works of Korean occult movies in 1970's is *Neo ttohan byeol-i doe-eo* (You become a star, too)(1975). The movie contained scenes that had not seen in traditional Korean horror movies, such as scenes of diagnosis in hospital or of criminal investigation. These scenes represented the modernity by imitating the similar scenes in the movie *The Exorcist*. Using psychicist characters, which was useful to describe surrealistic phenomena in the scientific point of view, was also an attempt to represent the modernity. Unlike shamanism or superstition, psychics in occult movies had authority as another science. These were the result of attempts to make modernized horror movies.

Meanwhile, Korean occult movies also had distinctive features influenced by the traditional narrative convention or cultural customs. For example, demons were replaced by female ghosts in Korean occult movies. Ghosts were eliminated by conciliation instead of exorcism. Like the governor in Korean traditional ghost stories, Psychicists played a role as the male authority to normalize the chaos caused by Female ghosts. At this point, we can find features of Korean traditional ghost stories that have significantly influenced on Korean horror movies for a long time.

From the description above, it can be said that the acceptance of occult genre in Korea was not just an imitation of western movies, but also the creation and transformation of the genre, closely related to the sociocultural situation of Korean society.

Key words : 1970s, Korean horror movie, Neo ttohan byeol-i doe-eo(You become a star, too), Occult movie, psychics, The Exorcist

접수일: 2017년 11월 15일

심사기간: 2017년 11월 21일 - 12월 1일

게재결정: 2017년 12월 20일